



SEAM
ANNUAL REPORT
2018

SEAM

SEAM ANNUAL REPORT 2018

2018 Review

2015년 심센터 설립을 계획하여 2016년 심센터가 개관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본 사업이 정착되고 공동체가 확립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관 이후, 센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청년들 발굴 및 유입하기 위해 심센터 홍보와 공동체 형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센터의 정체성과 인지도가 확립되면서 2018년에는 주요 공동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발굴 및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었습니다. 공동체는 4개의 주요 공동체로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구성원의 특성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아래 각각의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개년 추진 과정

2015 준비

2015년에 심센터 설립 및 공간 마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클러스터 수요 신우회와 비전클래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017 사업정착

2017년에는 전체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심센터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였습니다.

각 사업에 맞게 프로그램 확충 및 강화하였고, 각 사업별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커뮤니티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2016 도입

2016년도에는 개관 첫 해로 심센터의 공간 및 사업을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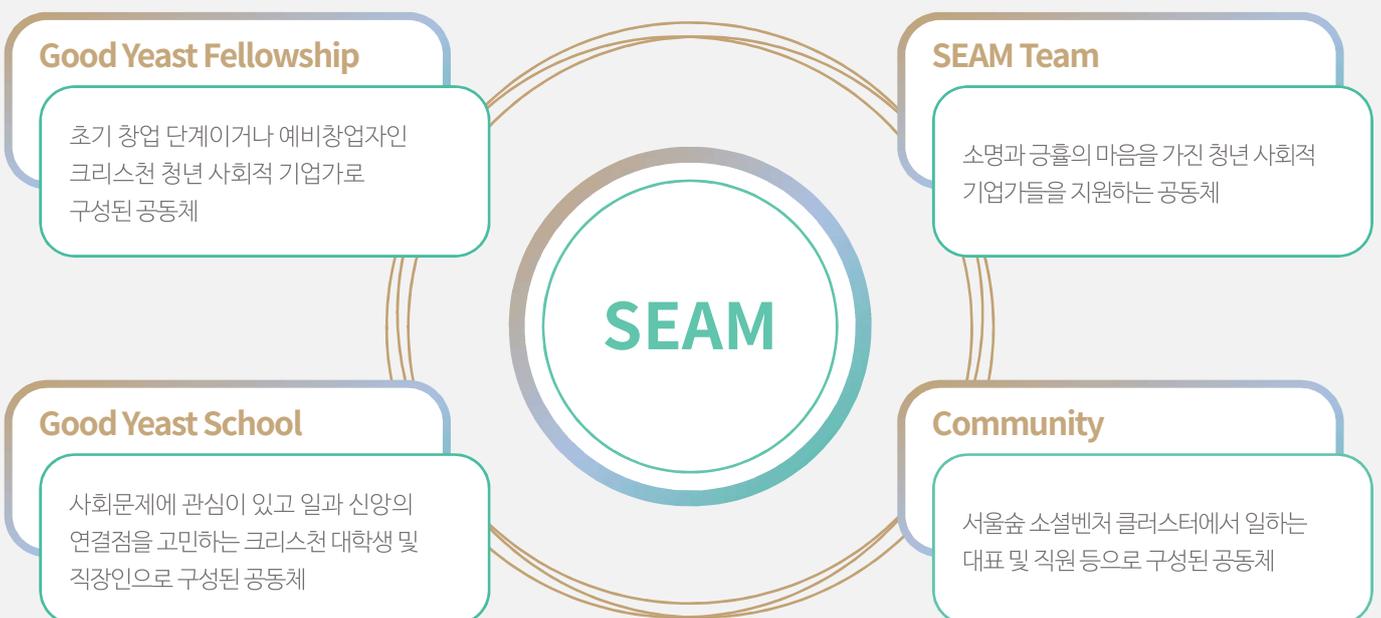
2015년 시범 운영하였던 비전클래스는 커리큘럼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장인 대상의 회복클래스를 기획하여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2018 공동체 확립

2018년은 일련의 사업들이 공동체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속력 강화를 통한 공동체성 확립'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각 멤버들이 심공동체에 대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체 형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공동체 특성



2018년 연간행사

2018. 01

- 심센터 2주년 감사예배
- 상반기 펠로우 워크샵
- 상반기 코워킹 타운홀 미팅

2018. 02

- 펠로우 역량 강화 교육
- SEAM팀 해외아웃리치 (말레이시아)

2018. 03

- 부활절 행사

2018. 05

- STC 1 수료
- 비전클래스 6기

2018. 06

- 펠로우 6기 선발
- 상반기 비전클래스 전기수 모임

2018. 08

- 회복클래스
- 하반기 펠로우 워크샵

2018. 09

- 1박 2일 캠프(In-depth Camp)
- 하반기 코워킹 타운홀 미팅

2018. 10

- 쉐어하우스 홈커밍 데이

2018. 11

- 비전클래스 7기
- 서울숲 크리스천 연합모임
- STC 2 수료

2018. 12

- 청년들을 위한 소명 책 집필
- 펠로우 7기 선발
- 크리스마스 행사
- 하반기 비전클래스 전기수 모임

Good Yeast Fellowship

Good Yeast Fellowship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바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초기 단계의 크리스천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대상으로 연 2회 선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 ACCEL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실무 교육 등의 비즈니스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소명에 따라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STC 영성훈련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펠로우가 거주하는 쉐어하우스 내에서는 주1회 정기적인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영적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펠로우 간의 교제를 확대하고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펠로우 워크샵(연 2회), 펠로우 모임(2개월 주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ellowship Core Program

STC 훈련

개인의 영적성장 및 신앙 공동체성을 정립하여 사회적 기업을 소명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C(SEAM Training Course)]

STC훈련은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4가지 축을 점검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연 2회 총 11주 동안 강의 및 북스터디를 진행하며, 1:1심방을 통해 매일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 주차별 강의 및 북스터디: 매주 목요일 2시간 동안 주차별 강의를 듣고,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앙 서적을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 1:1 심방: 매주 1회 한 주간의 경건 생활을 점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 훈련 워크샵: 훈련 기간 동안 고민하고 배운 것을 정리하며, 훈련 수료를 격려하기 위한 1박 2일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주	STC 1 주차별 주제	STC 2 주차별 주제
1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2	그리스도인의 균형잡힌 삶	그리스도인의 균형잡힌 삶
3	하나님나라	부르심과 공화
4	시간관리와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의 교제
5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삶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6	큐티와 말씀적용	전도자의 삶
7	귀납법적 성경연구	사영리강의 1
8	기도의 능력	사영리강의 2
9	중보기도	성령충만함의 비결
10	영적전쟁	주재권과 권리포기
11	훈련워크샵	훈련워크샵

비즈니스 훈련

신앙과 비즈니스의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사회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EAM Accel]

창업 초기 단계의 크리스천 사회적 기업가들이 비즈니스 모델 및 본인의 사업 임팩트를 정리할 수 있도록 총 6주 교육 및 1:1 멘토링이 진행됩니다.

[실무교육]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세무, 인사 등 기본 실무 교육을 제공하며, 실무를 비롯하여 2019년부터는 펠로우가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 배경 지식 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세미나 및 자원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펠로우 공동체

펠로우 간의 화합 및 신앙 공동체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펠로우 워크샵]

연 2회 새롭게 선발된 펠로우를 환영하며 친교 및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 1박 2일 동안 함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펠로우 모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및 개인의 고민, 기도제목 등을 깊이 나누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Fellowship Review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STC 훈련, SEAM엑셀, 수요모임 등)을 통해 본인의 소명과 비즈니스를 점검해보는 평가 설문을 진행하였고, 총 9명 응답 (2018년 12월에 선발된 신규 펠로우 3명 제외)하였습니다.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 (1) 소명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즈니스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었고, (2) 펠로우 간의 교제를 통해 기쁨이 잡힌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이 본인의 소명과
사업에 있어
어떤 도움이 되었나?

본인의 소명과 능력에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연결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

- STC 훈련 : 경건생활을 습관화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SEAM엑셀 : 신앙을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성과 비전을 점검하고 사업적인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
- 펠로우 워크샵 : 펠로우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음
- 쉐어하우스 생활 :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 청년대표들과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고, 공동체의 유익을 누릴 수 있었음
- 수요모임 : 신앙적으로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었음

- 공통적으로 소명을 바탕으로 공휴의 대상을 이해하고 있고, 본인의 비즈니스와의 연결점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음
- 특히,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통해 공휴의 대상자와 교류하면서 소명과 사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음
- 올해 SEAM엑셀을 통해 방향성을 전면 재설정한 펠로우의 경우,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방향성을 잡힌 것 자체에 대해 높이 평가했음. 현재는 소명과 비즈니스의 연결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시킬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키자미 테이블 레스토랑 - 유현정 대표

르완다 청년들의 자립에 마음이 있던 유현정 대표는 한국에서의 준비를 마치고, 2018년 5월 르완다로 떠나 9월 현지 매장을 오픈하여 르완다청년들과 키자미 테이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온드 프로젝트 - 김경환 대표

김경환 대표는 2017년부터 패션 교육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패션 분야의 진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는 '호통판사 천중호 판사님'께서 설립한 부산에 위치한 만사소년 (위기청소년들의 돌봄과 자립을 돕는 지원센터)에서 위기청소년들과 함께 패션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 뮤지컬 - 손지영 단장

손지영 단장은 하나님 안에서 청년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꿈꾸며 바라뮤지컬을 이끌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조건없이 존재자체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전하고자 더작은재단과 참여형 창작뮤지컬을 공동기획하였습니다. 북촌에 위치한 오픈아이스센터와 중,고등학교에서 창작뮤지컬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 New Fellow



5기 손지영

바라뮤지컬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라뮤지컬은 뮤지컬을 통해 왜곡된 자아개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 및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창작 공연을 제작하여 공연하고 있습니다.



6기 김봄

베라카스튜디오

“무기력 경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청소년 센터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문화 콘텐츠를 통해 무기력 경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6기 김영진

투얼

“마음을 다친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돕는 통로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북한 청년의 진솔한 스토리를 패션 리폼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담아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탈북 청년들의 스타일링 서비스와 패션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패션을 매개체로 남북한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여, 하나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6기 박연

더 청춘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도시빈민 청년들에 자립을 돕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도시 빈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커피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Good Yeast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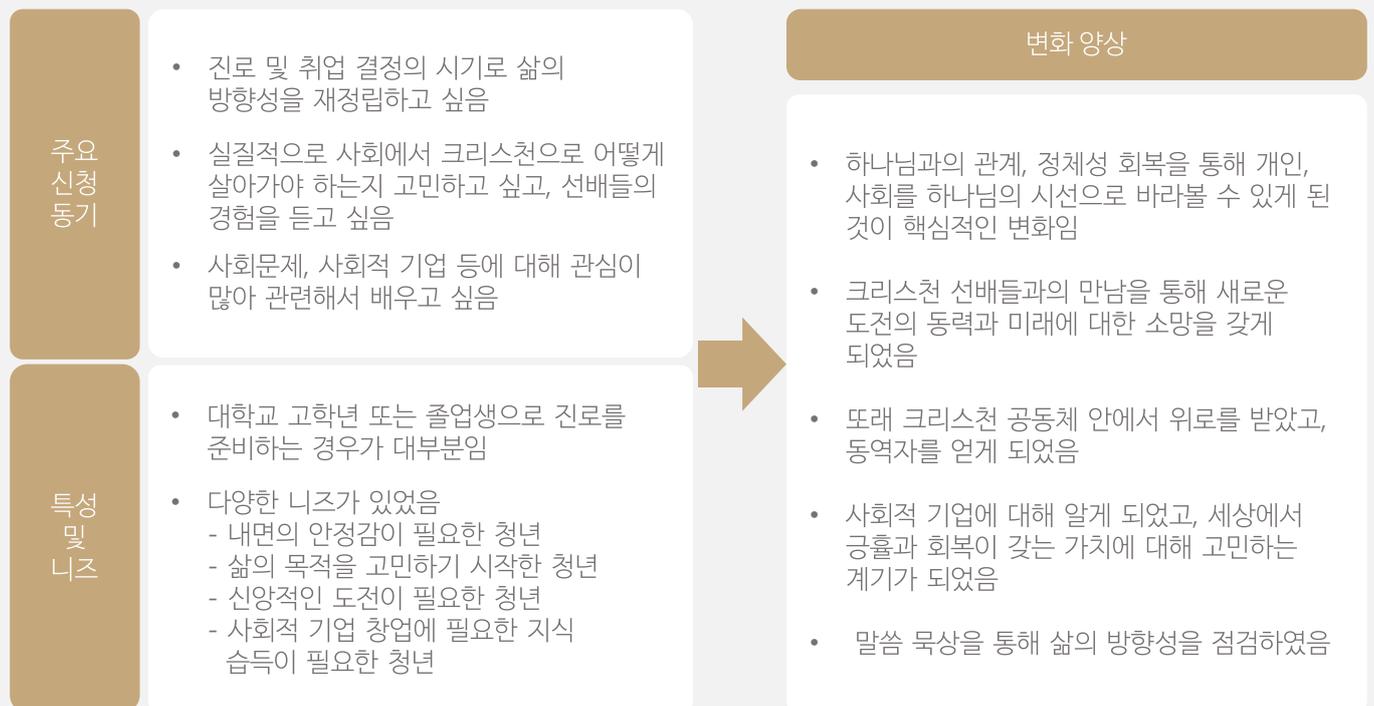
Good Yeast School은 소명과 사회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청년들이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쿨은 비전클래스와 회복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전클래스는 소명과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대학생 및 졸업생 청년을 위한 클래스로 총 5주간 운영됩니다. 회복클래스는 총 4주간 비영리, 소셜 영역의 크리스천 직장인을 대상으로 소명으로서의 회복을 돕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비전클래스

비전클래스는 삶에 대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찾아가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접목해보는 클래스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청년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개편하여 연 2회 정규 클래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2기)부터 1박 2일 워크샵, 강의, 소그룹 나눔 등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현재(총 7기)까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Summary of three years



주요 활동별 의의

주요 활동들을 통해 청년들은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선배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련의 활동들이 취업과 진로 고민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위로를 받고, 소명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1박 2일 워크샵	어둠 속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형 전시를 통해서 어둠속에서 서로가 의지하는 경험을 통해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로드마스터를 통해 각 자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개인의 삶을 반추하게 되었음
	인생그래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각자의 삶을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었음 • 각자의 지나온 삶과 현재의 생활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음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명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강사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에 적용함 	
소그룹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관점에서 회차별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음 •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솔한 나눔을 통해서 청년공동체에 참여 하였음 	
사회적 기업 Case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사회적 기업, 사회 문제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큐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음 • 같은 기수 청년들과 묵상 내용을 나누며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REVIEW

“공활은 인간이 가지기 힘든 마음이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나눌 수 있었다”

- 비전클래스 6기 수료생-

“나의 비전. 소망. 미래 그 어떤것도 결단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 결단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말씀가운데 서야겠다는걸 느꼈습니다. 또한 세상의 부와 가치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쫓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비전클래스 7기 수료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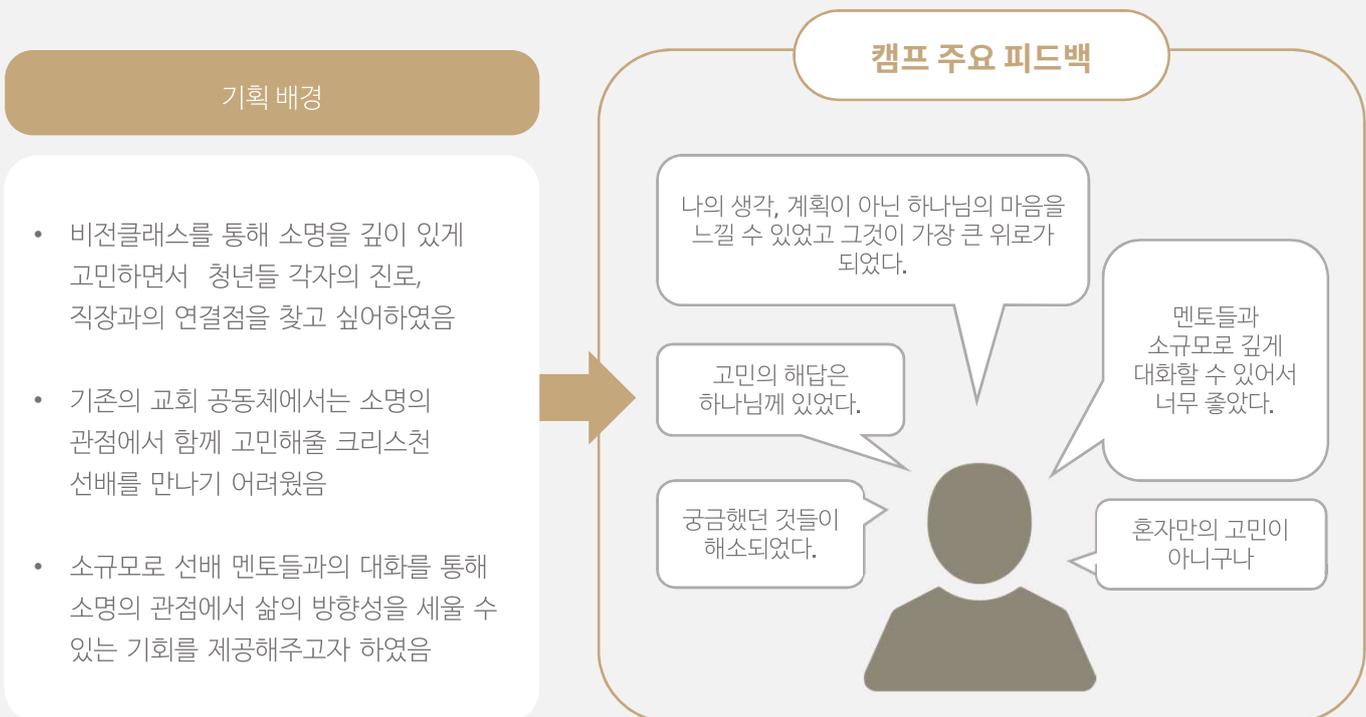
“강의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나가서 살게 될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 비전클래스 7기 수료생-

2018 비전클래스 신설 팔로우업 프로그램

In-depth Camp

In-depth Camp는 비전클래스 수료생을 대상으로 소명의 관점에서 현재의 고민(취업, 진로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처음 기획 및 운영된 프로그램입니다. 본 캠프에서 SEAM팀 및 3명의 멘토(명성진 목사, 박보혜 커뮤니케이터, 안정권CSO)와의 만남을 통해 캠프에 참석한 11명의 청년들은 1박 2일 동안 삶의 고민을 나누고 방향성을 다시금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캠프는 비전클래스 청년들을 팔로우업하기 위해 2~3년 주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REVIEW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라는 걸 느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니 지루할 틈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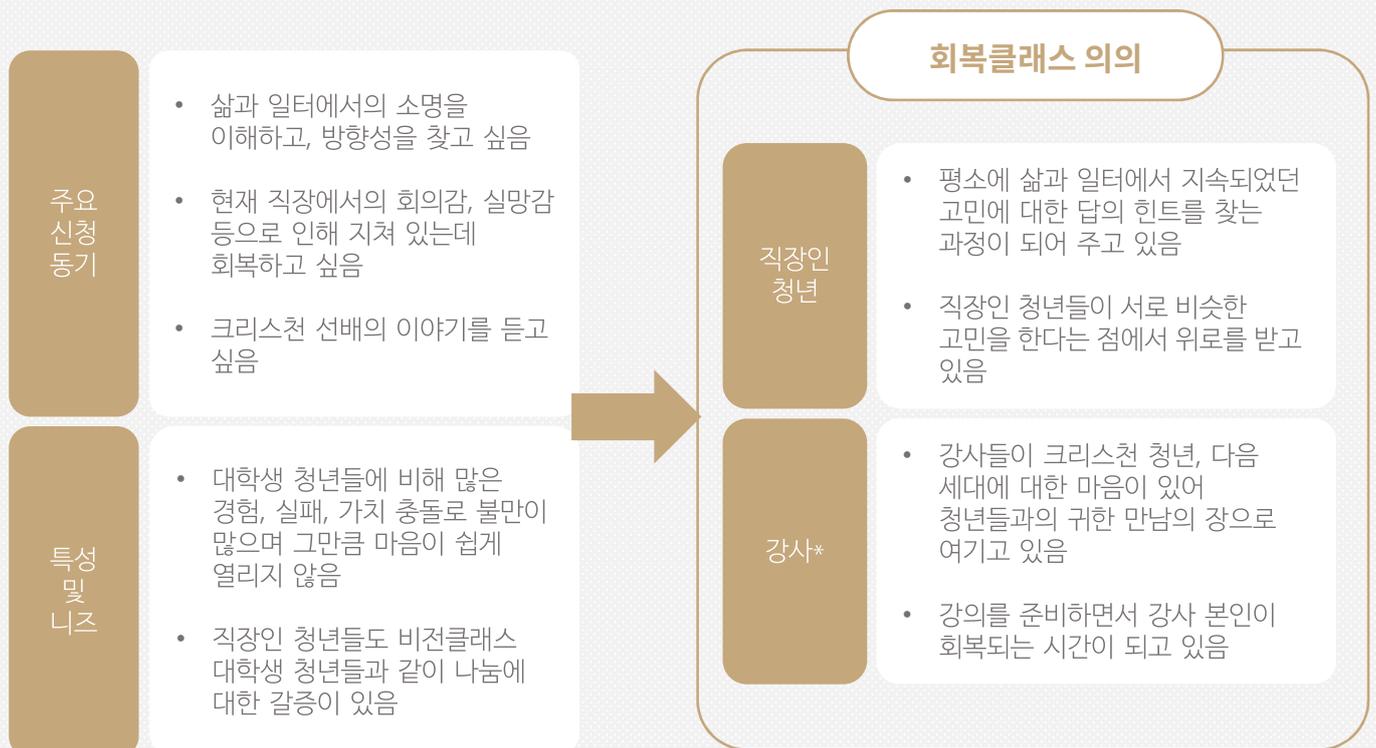
“내가 갖고 있던 고민의 실체가 내 선택에 따른 결과를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거 같다는 불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선택이 혼자만의 고민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고민해주신 결과라는 걸 함께 배웠다.”

“혼자 생각하는 것 보다 함께 생각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 내게 멋진 선배들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캠프를 통해서 나도 멋진 선배가 되고 싶어 졌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해주신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 내 옆에 하나님 있었던 것 같다.”

“멘토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은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 인생선배의 경험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청년들과 함께 보낸 시간도 의미있었습니다.”

회복클래스

회복클래스는 비영리, 소셜 영역의 크리스천 직장인을 대상으로 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일터와 삶 속에서 '소명'과 '회복'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회의 회복클래스를 진행하면서 회복클래스를 찾아오는 청년들의 특성 및 주요 니즈를 확인하였고, 직장인 청년들과 강사들의 회복을 돕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실제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서 공감을 기반으로 한 강사들의 소명에 대한 진솔한 고백 및 청년들 간의 소그룹 나눔을 중점으로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16년, 2018년에는 강사 피드백을 진행하지 않아 2017년 강사 피드백만 반영한 내용입니다.
 ※ 2016년~2018년 회복클래스 내부 피드백 보고서를 종합하여 정리한 결과입니다.

REVIEW

“4주간 강의를 듣고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를 하면서 매순간 말씀하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채워주고 계시는데,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 제 일상가운데, 하루가운데 주어진 것 중 허투루 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지금도 함께하시며 갈 길의 등불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세상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주관자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소명 가운데 더욱더 복음으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으로 소명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선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Appedix. 회복클래스 3개년 운영 비교표

	2016년	2017년	2018년
강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회 강사 강의 · 1회 홈커밍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회 강사 강의 · 1회 사회적 기업 관련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회 강사 강의 · 매회 소그룹나눔 편성
강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강의 (40명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강의 (20명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강의 (20명 내외)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지성 연구전문위원 · 명성진 목사 · 오승환 대표 · 최영우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성진 목사 · 신현상 교수 · 오승환 대표 · 조명희 대표 · 도현명 센터장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재구 교수 · 도현명 센터장 · 명성진 목사 · 오승환 대표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은 하나님만이 해주 실 수 있음을 명확화하고, 다시 바로 세워지는 ‘회복’의 작은 시작점이 되어주었다고 생각되어짐 · 전반적으로 직장 청년들의 참여 만족도는 높았고, 평소에 해왔던 고민에 대한 답의 힌트를 찾는 과정이 되어 주었음 · 직장 청년들도 비전클래스 대학생 청년들과 같이 나눔에 대한 갈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인들은 상황 변동 요소가 많아 참석 보장이 어려움 · 강사에게 의존 시, 강사에 따라 편차가 큼 · 청년들 간 나눔을 원함. 나눔 시간 확보가 필요함 (예 : 매주 조별로 식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터에서 갖고 있던 고민을 강의를 통해 해소하거나 더 심도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였고,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나눌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위로와 도전이 되었음 · 기존에 나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매회차 소그룹 나눔을 편성함으로써 개선되었음 · 마지막 회차에 4주간 어떠했는지 전체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편성되고, 소그룹 인원이 조정되면 충분한 나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이 정신 또는 사회적 기업 관련 콘텐츠 보강 필요 · 강의 중심의 회복은 한계가 있어 보임. 소규모 중심의 방향으로 조정 필요 · 커뮤니티 구성, 나눔에 대한 욕구 반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청년들과 달리 나이와 경험이 많고,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함 · 콘텐츠(예 : 팀켈러 - 일과 영성) 기반으로 기본 내용을 공유.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삶의 경험을 강사들의 강의와 사회적 기업 사례를 통해 정리하는 형태 등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 고민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하는 청년들끼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면 좋겠고, 회차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사회적 경제 외에 일반적인 일터에서 소명을 살아내는 강사 추가, 회복클래스 심화 과정 등의 제안도 있었음

Community

서울숲 소셜벤처 커뮤니티는 2014년 약 70여명으로 시작된 성수동이 2018년 약 1,700여명의 사회적 기업가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소셜 벤처 클러스터로 성장하였습니다. Community는 클러스터에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 일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요신우회는 커뮤니티 내에 크리스천 사회적 기업가 청년들이 신앙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자리입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를 확장하여 지역 전체와 교제하는 '서울숲 크리스천 연합모임'이 연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100여명의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을 추구하는 크리스천 청년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비욘드 임팩트 모임'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Community Core Program

수요신우회

커뮤니티 내에 상당수의 크리스천 사회적 기업가들이 일하고 있어 신앙을 나누고 교제할 커뮤니티 모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 수요신우회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5월 6일 첫 모임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150여회의 모임을 진행해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42회의 모임을 가졌으며 평균 18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숲 클러스터 연합모임

수요신우회를 지역 전체로 확장하여 클러스터 내 크리스천들의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 연 1회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연사를 초청하여 연합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도에는 언론활동을 내려놓으시고 저서와 설교를 통해 새롭게 신앙을 갖는 이들의 성장을 돕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욘드 임팩트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넘어서 소명적 삶을 추구하는 임팩트비즈니스 영역의 크리스천 청년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신앙 공동체입니다. 총 10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숲 크리스천 연합모임

2017년 이영표 해설위원의 강연에 이어 2018년은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특별 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9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 목사님의 언론인 시절과 현재 목회를 하시면서 깨달으신 크리스천의 직장 생활에 대해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고 함께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REVIEW

“개인적으로는 캄캄한 시기에, 성경과 기도로 보내야함을 인지하고만 있었는데, 정말 이번 강연을 통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 가야함을 다시 한 번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저의 궁금함이 같이 해결되기도하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며, 이 분야의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지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찾아갈 수는 없고 찾아오시는 분인 예수님께서 제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그 은혜로 저는 ‘영원’에 접속했고 가장 좋은 걸 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세상도 능히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뿌리 깊은 기쁨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은 처음인데, 많은 도전이 되고 ‘영성’과 그것을 갖춘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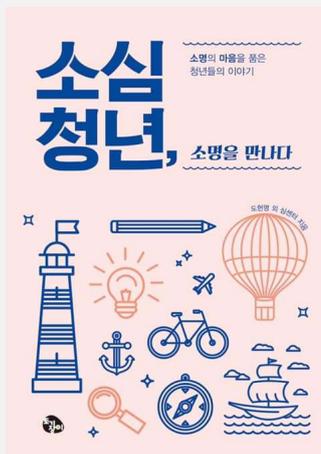


BAM(Business As Mission) 해외 교육 워크샵

해외 교육 워크샵은 소명을 바탕으로 신앙과 비즈니스의 연결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018년은 말레이시아 BAM 현장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회 문제, 지역 니즈, 그 일을 통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기간 : 2월 28일~3월 5일
- 지역 및 선교사 : 말레이시아 / 마창선(가명) 선교사
- 주요 일정 : BAM 세미나 강연 및 현지 사업장 방문
- 함의 및 심센터와의 연결점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BAM의 의의임
 - 현장에서 BAM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체 동역이 필요함
 -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대상자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보는 것이 필요함
 - 청년을 보내기에 적합한 현장이 있을지 탐색하고 외부와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임

‘소심청년, 소명을 만나다’ 책 집필



SEAM팀은 약 3년 동안 수많은 청년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면서 청년들을 위한 소명 책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쟁사회, 불안한 미래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 4월 토기장이 출판사와 함께 기획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필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출간된 소명을 다루는 다수의 책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치열과 고민과 생각을 담아 내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소명의 삶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되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소명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 선배들의 삶의 고백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무엇을 이룬 것도 없고 더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지만 20-30대를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다짐이고 앞서 고민한 신앙의 선배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청년들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본 책은 소명을 마음에 품은 청년들의 고백서라는 뜻을 담아 ‘소심청년, 소명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2019년 1월 출간 예정입니다.

SEAM

2018 SEAM 연차보고서